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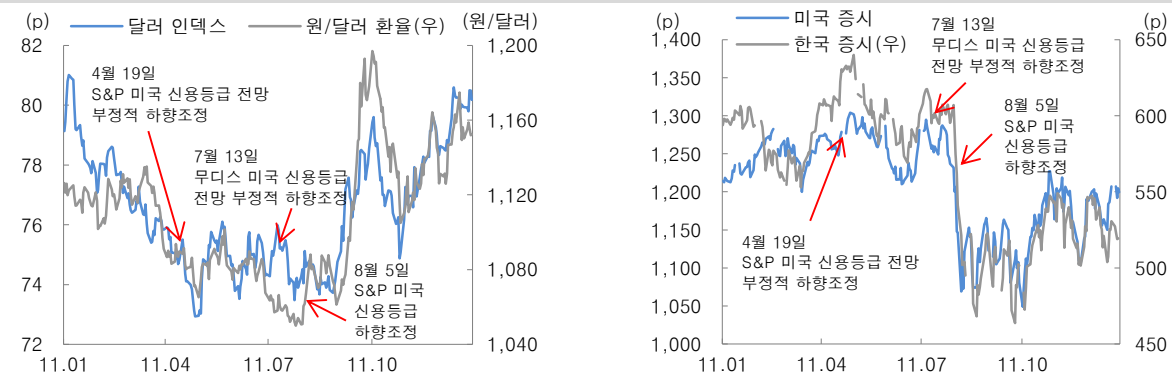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에 대한 판단

-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31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계속 유지하면서도 "이미 진행 중인 공공 재정의 악화와 신뢰할 만한 재정 강화 계획의 부재"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미국의 경기 수축이 덜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또한,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의 분열이 심화될 경우 경제 회복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정치적 양극화가 제도를 약화하고 초당적 협력의 범위를 좁게 만들어 구조적 이슈는 물론 장기적인 재정 과제에 대한 대응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염려한 것이다.
-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4월 S&P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겪었던 충격에 대한 트라우마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보다 며칠 전에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조정된 일본(27일)은 엔화 약세(0.7%), 증시 하락(4.18%)을 겪고 있다.
- 신용등급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고, 향후 신용등급 이슈에 주목해야한다. 그러나 이를 확대해석하기는 이르다. 실제로 2013년 10월 15일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했을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은 단기 변동성 확대 양상을 보였지만, 이내 기존 상승추세를 이어간 바 있다. 신용등급 전망 이슈만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기 투자심리 위축, 위험선호심리 후퇴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 2011년 8월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당시를 되돌아 보면 다음과 같은 변수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피치에 이어 S&P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여부 2) 이후 실제 신용등급 강등이 단행되는지 여부를 주목한다. 3) 이와 함께 글로벌(특히, 유럽) 신용등급 강등 러쉬가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 이 경우 달러 강세 압력 확대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변동성 증폭 가능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실 2011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폭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에 있다. 그리스 디폴트, 유럽 주요국들의 재정위기와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달러 급등으로 이어졌다.
- 2011년 9월 이후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금융안정 대책이 구체화되고,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상승반전을 모색해 나갔다. 현재는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통화/금융/재정정책과 경제활동 재개에 근거해 글로벌 경제는 정상화되고 있다. 경기회복 방향성에 문제만 없고, 불확실성 변수들이 경기회복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단기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 기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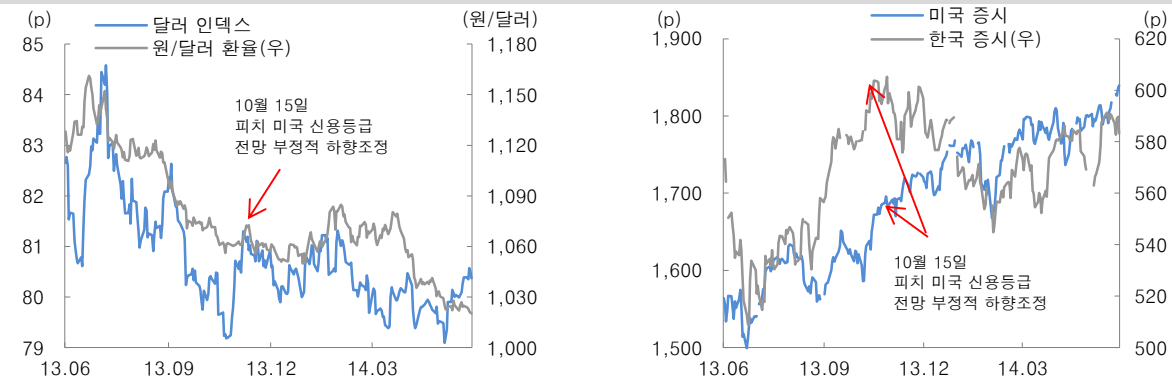
그림 1. 2011 년 4 월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 8 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달러 급등, 주식시장 급락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2013년 10월 피치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영향은 제한적. 단기 변동성 확대 이후 기존 추세 전개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달러 인덱스 200 일 이동평균선 하향이탈 & 하락추세 진행 중. 93p 전후에서 단기 기술적 반등 가능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